

서울경제

北, 연평도 무차별 포격... 靑 "무력도발 응징"

입력 2010.11.23. 오후 3:42 수정 2010.11.24. 오전 9:15

北, 연평도에 해안포·곡사포 100여발 발사



해안포 수십발 발사에 靑 80발 대응 사격

해병 2명 전사·민간인 포함 19명 중경상

靑 긴급 안보장관회의·전군 경계태세 강화

북한이 23일 오후2시34분께 서해 연평도 부근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이 중 수발은 주민들이 살고있는 연평도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에

우리 군도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 해안포기지 인근으로 K-9 자주포 80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군은 성명발표와 같은 행정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백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고 말했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이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추가 도발도 예상되므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식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뒤 "추가 도발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홍 수석이 발표한 성명에서 "더욱이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강력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측 호국훈련을 핑계로 한 북한의 국지도발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에 긴급 통신문을 보냈다"고 보고했다. 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긴급 질의에서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자위권 확립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사격을 80여발 했다"며 "북한 측에 즉각 도발중단을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응해 서해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또 합참은 이날 오후 사고발생 뒤 첫 공식 브리핑을 갖고 우리 측 피해규모에 대해 "군인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 피해는 3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흥기(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에 따르면 전사자는 2명으로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이었다. 이어 중상 6명, 경상 10명으로 이들은 현재 후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밤11시30분 현재 우리 군인 18명과 민간인 3명 등 총 21명(사망 2, 부상 19)이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24일 하루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소식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전의 북한 도발 때와 다르다고 보고 외화차입 유동성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피며 사태 추이에 대해 숙의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후6시 이주열 부총재 주재로 긴급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소집, 역외 외환시장과 외국인 투자동향 등을 살피고 상황전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열받은 이대통령 "北 또 포탄쏘면..."

☞ 北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사격"

☞ "굉 소리에 나가보니 온동네가 불바다"

☞ '떠오르는 강자' 알페온 직접 타보니...

☞ 애플 새 운영체제 iOS 4.2에 이런 기능이...

☞ 텔런트A '병역기피 의혹' 네티즌 수사대 나섰다

☞ 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야"

☞ '3.3m²당 4500만원' 최고분양가 아파트 가보니...

☞ '갤럭시탭'에 찬사 쏟아낸 그 대통령

권대경기자 kwon@sed.co.kr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알파클럽] 시장을 주도할 업종 및 유망종목 투자설명회 참가 접수!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대경 문성진

Copyright © 서울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112031>
